

고려시대 팔관회 행사와 팔관재 신앙*

정 병 삼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팔관재의 의의와 전승
- III. 국가적 행사로서의 八關會
- IV. 팔관재 신앙의 실천과 『受八戒齋文』
- V. 맺음말

* 이 논문은 숙명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과제번호 1-1403-0191)

〈한글요약〉

고려시대에는 팔관(八關)이라는 이름을 띤 국가적 불교 행사로서 팔관회(八關會)가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조하(朝賀)와 연회(宴會)를 병행한 팔관회는 군왕이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의식임과 동시에 외국인들도 참여함으로써 국제관계가 가미된 국제성을 띤 행사였다. 팔관회는 내적으로 고려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는 행사였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고려가 중심이 된 다원론적 천하관을 표현하여 국제적 위상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관민이 어우러진 의식이었던 팔관회는 사회적 일체감을 드높이는 행사로서 고려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불교적 행사였다.

1247년에 고려 북원지역에서 『수팔계재문(受八戒齋文)』이 간행되었다. 이 책은 고려 불교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해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지금의 원주 지역인 북원(北原)의 신성사(神聖寺) 승려 무료(無了)가 편집한 이 책은 편집자를 포함한 일단의 승려와 일반인 20여 명이 팔관재계(八關齋戒)의 의의를 강조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향도(香徒)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매달 단정한 마음으로 팔관재계를 수지 실천하기를 몇 년 동안을 지속하였다. 이들은 나아가 자신들만 선업을 쌓을 것이 아니라 시방의 승속 사부대중이 모두 이 계율을 닦아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도록 목판에 새겨 널리 유포하고자 내용을 정리하여 간행하였다. 계(戒)를 수지하면 고해를 벗어나 극락에 이르므로 승속을 막론하고 팔관재계를 수지하여 생생에 함께 정업(淨業)을 닦아 중생을 교화하고 대원을 널리 닦아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자는 것이 팔관재계를 실천하는 팔계향도(八戒香徒)들의 바람이었다.

팔관회는 ‘팔관’의 불교적 원의와는 달리 사회의식으로서 더욱 역할을 하였던 불교 행사인 반면, 팔관재는 팔관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 팔계재의 실천을 통해 고해를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기를 기원하며 궁극에 정토에 왕생하기를 기약하는 신앙적 모임이었다. 팔관재계의 실천 모임은 고려 불교 신앙의 큰 흐름과 함께 하며 정토신앙과 결합된 다양한 신앙의 한 양상을 새롭게 보여준 것이었다. 『수팔계재문』의 간행을 통해 확인된 고려의 팔관재 신앙은 같은 명칭을 가지면서 내용은 사뭇 다른 팔관회와 함께 고려 지역사회에서 신앙적 본질과 수행으로 의미 있는 불교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이었다.

주제어 : 수팔계재문, 팔관재계, 팔계향도, 팔관회, 정토신앙, 무료, 신앙공동체.

I. 머리말

고려시대는 불교가 국가적 사회적으로 다방면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졌던 시대이다. 사상적으로 새로운 사상으로 확립된 선종과 내용을 정비한 교학이 서로 대립하는 추세 속에서도 상호 조화를 모색하였다. 불교조직과 제도의 운영을 통해 국가불교의 틀을 유지하며 사회에 광범위하게 사상과 신앙이 이해되었다.

80여 종에 1,000회가 넘는 각종 행사가 시행된 고려의 불교행사는 전란이나 재앙 퇴치 및 국가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축제적인 성격도 함께 지녀 국민의 일체감 조성에 기여하였다. 이에 비해 지방사회의 향리층이나 일반민들은 독자적인 신앙공동체인 향도를 결성하여 불상 등의 조성 시주에 참여하여 정토신앙을 유지하였다.

이처럼 고려사회의 구성원 전체가 불교신앙에 입각하고 있었음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가 불교적 의례인 연등회와 팔관회로 구성되었다는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매년 봄과 겨울에 거행된 이 행사들은 본래 각 지역 공동체마다 거행하던 농경의례와 추수감사 의식을 불교적으로 재편하여 거행한 것이었다. 이처럼 불교적으로 체계화된 연례 행사들이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체에서 동질적으로 거행됨으로써 고려는 불교신앙과 문화에 기반한 사회적 통합을 추진해 갈 수 있었다.¹⁾

불교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인 여러 가지 목적의 많은 불교 행사 중에서 국가적 행사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팔관회(八關會)는 해마다 거국적인 행사로 개최되어 국민적인 성격을 지녔다. 그런데 본래적 의미의 팔관제(八關齋)는 불교도의 기본적 계율인 오계(五戒)와 더불어 일반 신도들이 지켜야 할 계율의 한 종류였다. 살생·투도·사음·망어·음주를 앓겠다는 오계에 더하여, 때가 아니면 먹지 않고, 호화로운 자리에 앉지 않고, 가무를 즐기거나 화장을 앓겠다는 것을 더해 여덟 가지 조항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중국에서 남북조시기부터 전몰 장병의 넋을 기리는 행사로 팔관회가 시행되기 시작한 이래 신라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팔관회가 거행되었고, 고려에서는 더욱 확대된 축제적 행사로 치러졌다.²⁾

1) 최연식, 『사상과 신앙으로 본 불교전통의 흐름』(서울: 두산동아, 2007), p.135.

2) 팔관회에 대한 주요 저서와 연구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종명, 『한국 중세의 불교 의례: 사상적 배경과 역사적 의미』(서울: 문학과지성사, 2001). 안지원,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安啓賢, 「八關會攷」, 『東國史學』 4(서울: 동국사학회, 1956)(『韓國佛教思想史研究』, 서울: 동국대출판부, 1983 재수록); 韓基汶, 「高麗時期 定期 佛教儀禮의 成立과 性格」, 『民族文化論叢』 27(대구: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03); 김혜숙, 「高麗 八關會의 內容과 機能」, 『역사민속학』 9(서울: 역사민속학회, 1999); 韓政洙, 「高麗 太祖代 八

이에 비해 13세기에 무료(無了)가 편찬 간행한 『수팔계재문(受八戒齋文)』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정업(淨業)을 닦아 부처의 수기를 받고 깨달음에 이르자는 수행 모임인 팔계향도(八戒香徒)가 간행한 서적이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³⁾ 고려시대의 불교 신앙은 다양한 면모로 나타났지만 그 중심은 정도에의 왕생에 있었는데, 이 팔관재 신앙 또한 고려사회 불교신앙의 흐름을 같이하는 새로운 신앙 사례로서 주목된다. 특히 고려 후기 불교계의 여러 가지 새로운 방향 모색 중에 실천 불교를 지향하던 지방 신앙모임의 구체적인 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글은 팔관재 신앙의 실천과 그 보급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갖고 간행된 『수팔계재문』의 내용과 의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팔관(八關)’이라는 용어를 공통으로 가지면서도 서로 다른 목적과 의의를 갖는 팔관회 행사와 팔관재 신앙의 의미를 비교해 보고, 이를 통해 고려 사회에서 실천되었던 불교 행사와 신앙이 갖는 의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팔관재의 의의와 전승

팔관재법(八關齋法)은 아함계 경전에서부터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증일아함경』에 나오는 팔관재법은 그 조항으로 불살생(不殺生), 불여취(不與取), 불음(不姪), 불망어(不妄語), 불음주(不飲酒), 불과시식(不過時食), 불처고광지상(不處高廣之床), 원리작창기악화도신(遠離作倡伎樂香華塗身)을 꼽았으며, 이를 8일·14일·15일에 승려가 있는 곳에 가서 아침부터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⁴⁾ 이때 함께 발원해야 하는 내용이

關會 실행과 그 의미』, 『大東文化研究』 86(서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4).

3) 『受八戒齋文』木板本. 동국대학교 도서관 소장(도서번호: 고서 213 무236 入).

주요 서지사항 高麗高宗 34년(1247)간, 1冊: 四周單邊 半郭 24.2 × 15.8cm, 無界, 9行16字 註雙行, 無魚尾; 32.2×20.0cm, 18張, 上下向黑魚尾. 版心題: 八戒文, 卷首 普勸四衆受八戒齋文 時泰和九年己巳(1209)正月十五日 北原翔玄子李源歸勸文, 卷末: 丁未(1247)十月日輪山八戒香徒丞同正金 求(求+頁) 誌.

편찬자 무료는 北原(지금의 원주)의 神聖寺 승려이다. 다른 사항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지방 관료와 유력자로 추정되는 이들과 함께 승속이 한마음으로 팔계를 지켜 극락왕생을 기원하던 克樞가 팔계 관련 내용을 새롭게 엮어줄 것을 요청하여 편찬하였음을 서발문에서 밝히고 있어, 당시 그 지역에서 경전 특히 계율에 깊은 안목을 가졌던 승려였음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4) 『增一阿含經』 권38 「馬血天子問八政品」(『大正藏』2, p.756下16). “聞如是一時佛在舍衛國祇樹給孤獨園 爾時世尊告諸比丘 我今當說賢聖八關齋法 汝等善思念之 隨喜奉行 爾時諸

다음과 같다. 곧 팔관재법을 수행함으로써 삼악도나 팔난의 처소에 떨어지지 않고, 변경이나 험악한 곳에도 떨어지지 않으며, 악지식과 어울리지 않고 사건을 익히지 않고, 중국에 태어나서 바른 부모와 선법을 성취하며, 이 공덕으로 일체중생이 위없는 도를 이루게 하고, 삼승을 이루게 하고, 불도를 배워 미륵불이 출현할 때 만나기를 발원해야 한다고 하였다.⁵⁾

이처럼 『증일아함경』의 팔관재법은 팔계를 수행하여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미래 미륵불 세계를 만나게 될 것을 발원하는 수행을 제시한다. 이에 비해 『팔관재경(八關齋經)』은 아라한이 육신을 다하도록 살생 등 팔계 내용을 지키듯이 수행자 또한 팔계를 지켜야 함을 설한다.⁶⁾ 이전까지 팔계재가 보편적인 번역어였는데도 『팔관재경』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관(關)’이 ‘금(禁)’과 상통하고 ‘관’자를 선호하던 중국인의 관념과 맞물려 팔관재를 택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⁷⁾ 이 경에서는 특히 ‘아무개는 하루 낮 하루 밤이라도 이들을 지킨다’는 서술 유형을 설하고 있는데,⁸⁾ 이는 『수팔계재문』에 그대로 수용된 구절 특징의 하나이다. 또 『팔관재경』은 팔관재를 수행하면 공덕이 무한하여 복과 공덕과 과보가 끝이 없음을 설한다. 『팔관재경』은 일정한 형식에 따라 팔관재 수행을 권장하고 그에 따라 복과 과보가 끝이 없는 무한한 공덕을 얻게 됨을 말하고 있다.

팔관재의 수행에 대해 『팔관재경』은 기본 5계는 이후 계속해서, 그리고 나머지 3계

比丘從佛受教 世尊告曰 彼云何名為八關齋法 一者不殺生 二者不與取 三者不婬 四者不妄語 五者不飲酒 六者不過時食 七者不處高廣之床 八者遠離作倡伎樂 香華塗身 是謂比丘名為賢聖八關齋法 是時優波離白佛言 云何修行八關齋法 世尊告曰 於是優波離 若善男子善女人 於八日十四日十五日 往詣沙門若長老比丘所 自稱名字 從朝至暮如阿羅漢 持心不移不動 刀杖不加群生 普慈於一切”

5) 『增一阿含經』 권38 「馬血天子問八政品」(『大正藏』2, p.757上6). “世尊告曰 彼發願時 我今以此八關齋法 莫墮地獄餓鬼畜生 亦莫墮八難之處 莫處邊境 莫墮凶弊之處 莫與惡知識從事 父母專正 無習邪見 生中國中 聞其善法 分別思惟 法法成就 持此齋法功德 攝取一切眾生之善 以此功德 惠施彼人 使成無上正真之道 持此誓願之福 施成三乘 使不中退 復持此八關齋法 用學佛道 辟支佛道 阿羅漢道 諸世界學正法者 亦習此業 正使將來彌勒佛出現世時 如來至真等正覺值遇彼會 使得時度”

6) 沮渠京聲譯, 『八關齋經』(『大正藏』1, p.913上). “猶如阿羅漢 盡形壽不殺生 亦不教人殺生 無怨恨心常懷慚愧 有慈心愍一切眾生 我字某名某 為阿羅漢所教 自今已後 隨意所欲不復殺生 無怨恨心常懷慚愧 有慈心愍一切眾生” 이와 비슷한 형태의 경전이 『增一阿含經』 권16 高幢品の 내용이다.(『大正藏』2, p.625中14. “云何為八關齋法 持心如真人 盡形壽不殺 無有害心 於眾生有慈心之念 我今字某 持齋至明日清旦 不殺無有害心 有慈心於一切眾生”)

7) 안지원, 앞의 책, pp.126-127.

8) 『八關齋經』(『大正藏』1, p.913中12). “猶如阿羅漢 盡形壽不犯齋隨時食 如是我字某名某 今一日一夜隨意所欲亦不犯齋 亦不教人使犯齋隨時食”

는 1일1야를 지킬 것을 설하였다. 이에 비해 『증일아함경』은 15일 중 8일·14일·15일의 3재일, 곧 한 달에 육재일(六齋日)에 사천왕이 신하를 보내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므로 이날 팔관재를 잘 수행해야 함을 설하였다.⁹⁾

그리고 당대(唐代)에 등장하는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에서는 1일·8일·14일·15일·18일·23일·24일·28일·29일·30일에 여러 죄악을 모아 그 경중을 정하므로 이 십재일(十齋日)에 불보살과 현성 앞에서 이 경을 독송하면 모든 재앙이 없어지고 미래세까지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집안에 액난이나 질병이 없고 의식이 풍족하리라고 하였다.¹⁰⁾ 다만 이 경에서는 살생·투도·사음·망어의 잘못 등 백천 죄상을 들고 있어 팔관재계와는 차이가 있다.

팔관재법의 내용은 『법원주림(法苑珠林)』(668년)에서 체계화되었다. 『법원주림』은 수계편(受戒篇)을 시설하고 이를 술의부(述意部)·권지부(勸持部)·삼귀부(三歸部)·오계부(五戒部)·팔계부(八戒部)·십선부(十善部)·삼취부(三聚部)로 나누었는데, 그중 팔계부를 다시 술의부·회명부(會名部)·공능부(功能部)·득실부(得失部)·수법부(受法部)·계상부(戒相部)로 나누어 여러 경론을 인용하여 팔관재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¹¹⁾ 특히 팔관재의 명칭을 설명하는 회명부에서 ‘관’이란 8악을 단아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하고, 때가 아니면 먹지 않는 것을 ‘재’라 하는데 재는 가지런히 한다는 뜻으로 6정 곧 안·이·비·설·신·의의 육근을 금지하여 육진(六塵) 곧 육경(六境)에 오염되지 않음을 말하며, 악을 끊고 선을 닦는 것을 이룬다고 하였다. 이런 구분에 따라 8계를 9개로 나누어 때 아닌 때 먹지 않는 것을 재로 따로 떼어내고, 기악을 하지 않음과 향화를 꾸미지 않음을 나누어 8계로 구분하기도 함을 말하였다.¹²⁾ 대부분

9) 『增一阿含經』 권16 「高幢品」(『大正藏』2, p.624中20). “爾時世尊告諸比丘 十五日中有三齋法 云何為三 八日 十四日 十五日 比丘當知 或有是時 八日齋日 四天王遣諸輔臣 觀察世間 誰有作善惡者 何等眾生有慈孝父母沙門婆羅門及尊長者 頗有眾生好喜布施修戒忍辱精進 三昧演散經義持八關齋者 具分別之”

10) 『地藏菩薩本願經』 권6 「如來讚歎品」(『大正藏』13, p.783中25). “復次普廣 若未來世眾生 於月一日 八日 十四日 十五日 十八日 二十三 二十四 二十八 二十九日 乃至三十日 是諸日 等 諸罪結集 定其輕重 南閻浮提眾生 舉止動念 無不是業 無不是罪 何況恣情 殺害竊盜邪 姪妄語 百千罪狀 能於是十齋日 對佛菩薩諸賢聖像前 讀是經一遍 東西南北百由旬內 無諸 災難 當此居家 若長若幼 現在未來百千歲中 永離惡趣 能於十齋日每轉一遍 現世令此居家 無諸橫病 衣食豐溢”

11) 『法苑珠林』 권88 五戒部 八戒部(『大正藏』53, pp.928-934)

12) 『法苑珠林』 권88 八戒部 會名部(『大正藏』53, p.931下18). “問曰 諸經論中何名八關齋 亦名關戒耶 答曰 前八是關閉八惡不起諸過 不非時食者 是齋 齋者齊也 謂禁止六情不染六塵 齊斷諸惡具修眾善 故名齋也 又齋戒體一名別 若尋名定體 體容小別 齋者過中不食為名 戒

의 설명은 8계를 설명하는 인용으로 이루어졌지만, 다음 명대(明代)의 예에서 보듯이 후대에는 9개로 나눈 재계(齋戒)의 구분이 계승되기도 하였다.

중국에서 팔관재는 3세기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재가 신자들은 죽은 이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또는 오후불식계를 지키는 등 계율 준수를 위해 팔관재를 열었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최하기도 하였다. 수 문제는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며 팔관재를 개최하였고, 귀족들이 개최한 팔관재는 유희적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였다.¹³⁾ 지방 책임자인 절도사를 지낸 전신공(田神功)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팔관재를 열었다.¹⁴⁾ 하남절도사 변주자사를 지낸 전신공은 772년에 열병에 걸렸다. 그의 공덕을 기리는 지역민들이 문무관료들과 함께 재를 시작하자 전신공은 봉전 30만으로 팔관대회를 열어 1천명의 승려에게 공양하였다. 이에 주현의 관리 1500인이 1회를 열고 백성들 5천인이 1회를 열어 불법을 강설하는 자리를 만드니 은혜에 공경하며 삼가 힘쓰는 자가 많았다. 이 기사는 당대에 팔관재가 치병을 목적으로 일반인 사이에서 성대한 규모로 행해지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당말오대에는 관휴(貫休)가 편찬한 『팔관재법(八關齋法)』이 널리 통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본 『수팔계재문』에서도 이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은 명대에도 이어져, 팔관재 관계 내용을 모아 책으로 엮기도 하였다. 홍찬재삼(弘贊在慘)이 편집한 『팔관재법』은 재가신도에게 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오계는 평생 지키는 것이고 팔계는 6재일 혹은 10재일에 지키는 것이지만 하루 밤낮을 지키더라도 공덕과 이익이 헤아릴 수 없다고 비교하고, 『법원주립』의 내용에 따라 『증일아함경』 등을 중심으로 팔관재의 내용을 엮어 편집하였다.¹⁵⁾ 이 책은 그러나 팔계계를 아홉 가지로 나누었는데, 본래 팔관재의 가무기약을 하지 않는 것과 향화로 꾸미는 것을 따로 분리하여 8계를 구성하고, 때가 아니면 먹지 않는 것은 재로 독립시켜 계와 재를 구분하고 재계를 합쳐 팔관재계라 한다고 『법원주립』의 설명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였다.¹⁶⁾ 이 책은 부록으로 남북조 이래의 팔관재 실행의 역사를 수록하고, 음식에서 육재일과 십재일을 설명하여 『지장보살본원경』의 십재일 내용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명의 지욱(智旭) 또한 『재가율요

者防非止惡為義 故薩婆多論云 八箇是戒 第九是齋 齋戒合數故有九也”

13) 김중명, 앞의 책, pp.168-169.

14) 정병준, 「顔眞卿 <有唐宋州官吏八關齋會報德記> 譯註」, 『新羅史學報』 제27호(성남: 신라사학회, 2013), pp.353-370.

15) 弘贊在慘, 『八關齋法』(『續藏經』60, p.697中9).

16) 편찬자인 在慘은 『四分律名義標釋』(권11)에서도 8관재법을 해설하였다.(『續藏經』44, p.487中3).

광집(在家律要廣集)』에 부가한 『수팔관재법(受八關齋法)』에서 팔지(八支) 내지 구지(九支)의 팔관재법을 『증일아함경』을 중심으로 해설하였다.

재삼의 『팔관재법』은 고려본 『수팔계재문』과 전체적인 취지와 분량이 비슷한 편이다. 『팔관재법』은 시행 방법을 “저 아무개가 어느 날 ~를 하지 않겠노라”는 간략한 절차를 제시하고 팔관재의 의미와 그 실천의 의의를 여러 경론을 인용하여 해설하였다. 제시문의 말미에서 팔계를 받아 실천한 복덕으로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며 번뇌를 끊고 일체지를 얻어 불도를 성취하기를 바라며, 또한 이 공덕으로 사문에 보답하고 중생과 더불어 정도에 왕생하기를 기원하였다. 이에 비해 『수팔계재문』은 총 96구로 이루어진 계송을 중심으로 업장을 참회하고 보리심을 내며 삼보에 귀의하고 팔계를 수지하여 무상보리심을 내어 악취중에 떨어지지 않고 아미타불의 인도를 받아 왕생하며 마지막에 정각을 이루자고 다짐하였다. 그리고 『법원주립』을 중심으로 여러 경론을 인용하여 팔관재계수지 수행의 의의를 상세하게 풀이하고, 발문에서도 정도 왕생과 깨달음의 증득을 강조하였다.

이 두 저술은 고려본 『수팔계재문』이 계송을 강조하고 『법원주립』에서의 인용을 명확히 제시하였고 『팔관재법』은 서술문 중심에 경론에서의 직접 인용한 형식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 같은 취지와 설명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서 서로 상통하는 저술로 평가할 수 있다. 『수팔계재문』이 더 독창적인 구성에 힘쓴 모습이 더욱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Ⅲ. 국가적 행사로서의 八關會

고려시대의 불교는 국가불교로서 매우 성행하였다. 종교와 신앙으로서 사람들의 정신적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으며 사회제도의 운영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고려 전시기에 걸쳐 생성되고 정비된 불교사상이 당대의 정신적 정화로서 시대 지성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사원의 갖가지 조형물이 문화의 정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면, 신앙활동과 의례는 당대인의 삶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사찰에서 거행된 고려시대 불교 행사는 불교 본연의 가르침을 전하는 경전강의 법회나 선회(禪會)로부터, 죽은 친지를 위한 기신도량이나 우란분재 그리고 마음에 안정을 가져다주는 여러 신앙 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사가 시행되었다. 그중에서도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갖는 국가적인 중심 행사로

연등회(燃燈會)와 팔관회(八關會)가 있다. 이 두 거국적 행사는 태조의 훈요십조(訓要十條)에 명기되어 이후 고려 전 시기 동안 변함없이 시행되었다.¹⁷⁾ 훈요십조에서 연등회는 부처를 섬기는 불교적 행사임을 분명히 한 반면, 팔관회는 천령(天靈)과 오악(五嶽)과 명산대천과 용신(龍神)을 섬긴다고 하여, 전통신앙의 숭배 대상을 두루 열거하였다. 고려 전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시행된 이 두 행사는 국가적 불교행사의 중심을 이루었다. 그리고 팔관회와 연등회 실행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 예지(禮志)에 상세하게 수록되어 그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¹⁸⁾

팔관회는 신라에서부터 시행되었다. 진흥왕 33년(572)에 전사 사졸(士卒)을 위해 외사(外寺)에서 7일 동안 팔관회를 거행하였다.¹⁹⁾ 이런 성격은 중국의 팔관회 시행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신라 팔관회의 성격은 불교와 재래 고유신앙이 습합되어 베풀어진 것으로 파악된다.²⁰⁾ 훈요십조에서 명기한 것에서 보듯이 고려의 팔관회도 이런 성격을 계승하여 호국을 강조하고, 양반 자제가 선랑(仙郎)으로 참여하는 가무적 성격을 지녔으며, 풍수지리 도참사상 내지 오행사상에 의해 더욱 성행할 수 있었다.²¹⁾

고려의 상원연등회(上元燃燈會)는 2월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행사였다. 연등회 기간 동안 관리들은 3일간의 휴가를 얻었으며 연등회를 주관하기 위해 연등도감을 설치 운영하였다. 이는 연등회가 고려 사회에서 중요한 국가적 행사로 여겨졌음을 의미한다. 연등회는 궁중의 강안전과 봉은사에서 지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14일의 소회일 행사는 강안전의 편전의식과 봉은사의 태조 진영에 잔을 올리는 진전(眞殿) 배알의식으로 진행되었다. 15일 대회일 행사는 강안전 연회를 중심으로 편전(便殿) 의식, 진설 및 좌정, 연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연등회 연회는 국왕과 신하 사이의 상하관계를 엄격히 하고 그에 따라 예물을 헌상하고 하사하는 의례절차를 정형화한 것이 특징이다. 대회일 밤에는 관등놀이를 하는 등석연(燈夕宴)으로 행사는 절정에 이르러 교방악(敎坊樂)을 감상하고 등석시(燈夕詩)를 짓는 등 종합적인 문화축제로 치러졌다. 연

17) 『高麗史』 권2 世家 太祖26년 4월. “御內殿召大匡朴述希親授訓要曰…중략… 其六曰 朕所至願 在於燃燈八關 燃燈所以事佛 八關所以事天靈及五嶽名山大川龍神也. 後世姦臣建白加減者 切宜禁止. 吾亦當初誓心 會日不犯國忌 君臣同樂 宜當敬依行之.”

18) 『高麗史』 권68 禮志 嘉禮雜儀 上元燃燈會儀; 仲冬八關會儀.

19)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興王 33년 10월. 팔관회가 처음 개최된 것은 居柒夫의 고구려 전투에 따른 고구려승 惠亮의 초빙에 의해 百高座會와 八關之法을 설치한 진흥왕 12년(551)으로 본다.(安啓賢, 앞의 책, p.201; 안지원, 앞의 책, p.143)

20) 安啓賢, 앞의 책, pp.205-206.

21) 앞의 책, pp.208-213.

등회가 정월이나 2월에 거행된 것은 불교적 의미에 제천신앙과 농경의례의 성격이 부가된 때문이었다.²²⁾

연등회가 순수한 불교적 성격이 강하다면 팔관회는 전통신앙의 면모가 두드러진 행사였다. 고려의 팔관회는 역사적 기록량, 휴일 기간, 개최 장소, 불길한 날 회피, 경죄수 사면, 사형 집행 금지, 전담기관 설치, 팔관회 전문가에 대한 융숭한 대우 등을 볼 때 고려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례였으며, 단순한 불교 의례만이 아니라 고유의 전통인 조상 숭배와 자연 숭배, 화랑제도 등이 결합되어 왕의 장수 기원과 왕실 조상 숭배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의례였다.²³⁾

팔관회는 대회가 열리는 밤에 궁중 광장에 운등(輪燈)과 향등 등 많은 등을 밝혀 밤새도록 광명이 비치게 하고, 50척이나 되는 채붕(綵棚)을 설치하여 장식하며 갖가지 유희와 가무를 벌이고 사선악부(四仙樂部)와 용, 봉황, 코끼리, 말, 수레와 배 등의 장식으로 화려한 모양새를 이루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신라의 고사였다고 한데서 신라적인 연회 양식이 지속된 것임을 추정하게 한다.²⁴⁾ 국왕이 관람하고 백관이 예를 행하며 구경하는 사람이 온 도성에서 밤낮으로 즐겼다는 이 행사의 이름은 부처를 공양하고 신을 즐겁게 하는 대회[供佛樂神之會]였다. 연등회가 불교의례이면서 군신동락의 축제적인 성격이 강했듯이 팔관회가 외국 사신들을 동석하게 하여 국왕의 권위와 고려의 위상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국가의례의 성격이 중요한 행사였지만 역시 군신과 백성이 함께 즐기는 축제였던 것이다. 고려 불교 행사 중 163회 개최된 연등회에 이어 팔관회는 두번째로 많은 114회가 개최된 중요 행사였다.²⁵⁾

팔관회는 팔관보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왕도 개경에서 중동(仲冬) 곧 11월 보름 전후로 3일간의 공휴일을 정하고, 14일과 15일의 소회일(小會日) 대회일(大會日)에 2일간 개최되었다. 개경의 팔관회는 태조 이래 고려말까지 변함없이 거행되었고, 서경에서도 고려 전기에 10월에 개설되었다. 14일의 소회일 행사는 난가출궁(鑾駕出宮)과 좌전

22) 안지원, 앞의 책, pp.64-87.

23) 김종명, 앞의 책, p.164; p.205.

24) 『高麗史節要』 권1太祖 원년 11월. “設八關會 有司言 前王每歲仲冬 大設八關齋以祈福 乞遵其制 王曰 朕以不德 獲守大業 盍依佛教 安輯邦家 遂於毬庭 置輪燈一所 香燈旁列 滿地光明 徹夜 又結綵棚兩所 各高五丈餘 狀若蓮臺 望之縹緲 呈百戲歌舞於前 其四仙樂部 龍鳳象馬車船 皆新羅故事 百官袍笏行禮 觀者傾都 晝夜樂焉 王御威鳳樓觀之 名爲供佛樂神之會 自後歲以爲常”

25) 金炯佑, 「高麗時代 國家的 佛教行事에 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서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2), p.84.

수하(坐殿受賀)로 이루어졌다. 난가출궁은 의봉문까지 국왕이 행차하여 태조의 진영 앞에 술을 올리고 배례하는 예조진작헌(詣祖眞酌獻)이다. 좌전수하는 국왕이 퇴장하여 휴식을 취한 후 다시 관원들이 정해진 위치에 서면 왕이 편차를 나와 백관들의 헌수(獻壽) 하례를 받고 이어 지방관들이 파견한 봉표원(奉表員)들의 봉표 조하의식이 이어지고 배정된 좌석에 앉아 백희와 음악 공연을 보고 차와 술과 음식을 함께 나누는 자리이다. 대회일 행사는 첫째날과 같은 난가출궁에 이어 외국인 조하의식과 연회가 베풀어졌다. 외국인들은 예물을 진상하고 자리를 배정받아 차와 술과 음식을 즐겼다. 다음은 연회로서 대회 참석자 모두에게 꽃과 술과 봉약과 과실을 즐기도록 하였다.²⁶⁾ 연회가 끝나면 왕은 궁궐 동북쪽에 위치한 법왕사(法王寺)로 행차하여 고승들을 초빙하여 법회를 열어, 민심이 편안하고 대외관계가 안정되기를 기원하였다.

조하와 연회를 병행한 팔관회는 군왕은 물론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의식임과 동시에 외국인들도 참여함으로써 국제관계가 가미된 국제성을 띤 행사였다. 즉 팔관회는 내적으로 고려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는 행사였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고려가 중심이 된 다원론적 천하관을 표현하여 국제적 위상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된다.²⁷⁾

이규보(李奎報)가 「법왕사팔관설경문(法王寺八關說經文)」에서 서술했듯이, 팔관회에서 법왕사에 행차하는 것은 불력의 가지(加持)를 힘입어 민심이 편안해지고 나라의 운수가 크게 형통하여 먼 곳까지 감화를 받고 경사스런 기쁨이 만세까지 보전하여 자손에게 끊임없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궁궐을 개방하여 관민이 어우러진 의식이었던 팔관회는 사회적 일체감을 드높이는 행사였던 것이다.²⁸⁾

IV. 팔관제 신앙의 실천과 『受八戒齋文』

『수팔계재문(受八戒齋文)』은 여러 경론에서 팔관제에 대한 내용을 모아 엮은 책이다. 모두 18장으로 된 이 책은 지금의 원주로 추정되는 북원(北原) 신성사(神聖寺)의 사주(社主) 무료(無了)가 편집한 것이다. 첫머리에 1209년(희종 5)에 상현자(翔玄子) 이원귀(李源歸)가 쓴 보권문(普勸文)이 있고, 끝머리에 1247년(고종 34)에 승동정(丞

26) 안지원, 앞의 책, pp.171-192.

27) 앞의 책, pp.369-382.

28) 韓基汶, 앞의 논문, pp.45-46.

同正) 김구(金求+頁)가 쓴 발문이 있어 간행 연대가 명확하다. 편집자 무료나 서문을 쓴 이원귀가 모두 복원인이라 하고 있어 강원도 지역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알 수 있다.

발문을 쓴 김구는 『화엄경』 구절을 인용하여²⁹⁾ 세상에 살면서 출세간의 선근을 심기 위해서는 계율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자신의 승려 친구인 극추(克樞)가 오대의 관휴가 편찬한 『팔관재법』을 보고 신심을 일으켰으나 글이 자세하지 않고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아쉬워했다고 한다.³⁰⁾ 그래서 신성사 무료가 다시 편집하여 1권으로 묶고 이원귀가 서문인 보권문을 지어 편찬했다. 승속 20여 인이 향도를 결성하고 매달 단정한 마음으로 수지한 지 몇 년이 된 즈음이었다.³¹⁾ 당시 극추가 김구에게 왕일휴(王日休)의 「용서증광정토문(龍舒增廣淨土文)」에 나오는 계송을 들어,³²⁾ 자신들만 선업을 쌓을 것이 아니라 시방의 승속 사부대중이 모두 이 계율을 닦아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도록 목판에 새겨 널리 유포하자고 권유하여 간행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여기서 밝힌 내용에 의해 당말오대에 활동한 관휴(貫休, 832-912)가 팔관재법에 대한 내용을 모아 『팔관재법』을 엮었음을 알 수 있다. 관휴의 책은 남아 있지 않지만 『수팔계재문』의 구성이 이런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어, 그 대강의 면모를 추정할 수 있다. 명대에 편찬된 『팔관재법』 또한 그런 유형을 계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수팔계재문』의 서문을 보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책에서는 사부대중에게 널리 팔계재를 수지하기를 권하는 글이라는 뜻인 「보권사중수팔계재문(普勸四衆受八戒齋文)」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계는 수없이 많은 보살이 깨달음을 이룬 요문(要門)이어서 계를 수지하면 고해를 벗어나 낙안 곧 극락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승속을 막론하고 이 계를 수지하려는 이는 생생에 함께 정업(淨業)을 닦아 중생을 교화하고 용화회상에서 부처의 수기를 받을 것이며, 대원을 널리 닦아 곧바로 깨달음에 이를 것이니, 분발하여 계를 범하지 말 것을 권한다고 하였다.³³⁾

29) 『華嚴經』 권17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大正藏』10, p.737上5). “如諸眾生及草木一切生長咸依地世及出世諸善根皆依最勝尸羅地無戒欲求生善道如鳥無翼欲飛空如人無足欲遊行亦如渡海無船筏”

30) 金구, 「受八關齋戒文」 『受八戒齋文』. “是以我空門友克樞曾得貫休所撮八關齋法慨然自發信心意欲受持然其文未悉而意義不相屬似非勉人以必修要人以必持者於是神聖寺社主無了更加詳定集爲一卷又以翔玄子作普勸文”

31) 金구, 「受八關齋戒文」 『受八戒齋文』. “始與道俗二十餘人結爲香徒每當月豎端心受持者有年于茲矣”

32) 王日休, 『龍舒增廣淨土文』(『大正藏』47, p.261上21). “故大慈菩薩勸修西方偈云能勸二人修比自己精進勸至十餘人福德已無量如勸百與千名爲真菩薩又能過萬數即是阿彌陀”

『수팔계재문』의 내용은 『법원주림』에서 인용한 내용을 중심으로 계율과 관련된 다양한 경론에서의 인용이 대부분을 이루며, 여기에 청육류성중(請六類聖衆)에서 회향발원(迴向發願)에 이르는 발원문을 핵심으로 한 구성이다.

도입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첫 부분은 『법원주림』 팔계부의 술의부와 회명부에서 인용한 두 단락으로 이루어졌다. 술의부는 계의 의의를 설한 부분은 생략하고, 정결하고 경건한 자세로 수계해야 하며 삼취정계를 이루어 중생을 구하는데 그 공덕이 인천을 넘어 부처와 같음을 강조한 구절을 인용하였다.³⁴⁾ 회명부의 인용은 관재(關齋)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8악을 막아 잘못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을 관, 때 아닌 때 먹지 않는 것을 재라 한다고 하고, 재는 가지런히 하는[齊] 것으로 육정을 금지하여 육진에 오염되지 않게 하며 악을 정제하여 끊고 선을 갖추어 닦도록 함을 이룬다고 하였다. 그리고 앞의 여덟 조항이 계이고, 마지막 아홉 번째 때 아닌 때 먹지 않는 것은 재라하여 조항이 모두 여덟이 아닌 아홉임을 설명한 구절이다.³⁵⁾ 『수팔계재문』의 인용문은 원문과 몇 자의 글자 차이가 있다. 이 두 구절은 『법원주림』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그런데 『수팔계재문』은 두 번째 단락에 분주를 달아 『살과다비니비바사(薩婆多毘尼毘婆沙)』를 인용하여 팔관재가 아홉 조항이 아닌 여덟 조항을 꼽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였다.³⁶⁾

다음 부분이 청육류성중, 참회업장, 발보리심, 귀의삼보, 팔계상, 회향발원의 여섯 단락에 모두 96구로 이루어진 발원문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다.³⁷⁾ 발원문은 7언 계송으로 이루어졌고, 각 단락 끝에 근거 경론이나 다라니를 인용 제시하였다.

그중 첫 번째 청육류성중(請六類聖衆)은 14구 분량으로 석가모니불을 비롯하여 문수 미륵 시방여래 제보살 범천 제석 사천왕을 청하는 계송이다. 끝에는 『자비참경소(慈悲懺經疏)』를 인용하여 화상과 아사리의 단어를 설명했고,³⁸⁾ 이어 『보현관경(普賢觀經)』을 인용하여 계송의 기반이 되는 내용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법원주림』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³⁹⁾ 다음은 참회업장(懺悔業障) 14구로 온갖 계율을 범했음을 참회하

33) 중간중간의 구절은 唐 裴休가 지은 「普勸僧俗發菩提心文」의 “若僧若俗 有能同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者 我願生生常同淨業 各領眷屬 分化眾生 龍華會中 同受佛記 廣修大願 直至菩提…중략… 自悲己身久失大利 慨然奮發將求佛身 即是初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也”(『續藏經』58, p.486上9-20)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34) 『法苑珠林』 권88(『大正藏』53, p.931下10)

35) 『法苑珠林』 권88(『大正藏』53, p.931下18)

36) 『薩婆多毘尼毘婆沙』 권1(『大正藏』23, p.508下24)

37) 발원문 부분은 모두 18장으로 구성된 『수팔계재문』의 2장b-7장b까지이다.

38)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慈悲道場水懺法科註』(『續藏經』87)의 내용과 상통한다.

고 다시는 계율을 범하지 않고 지킬 것을 서약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아촉여래염송법(阿闍如來念誦法)』에 나오는 참회멸죄(懺悔滅罪) 진언을 덧붙였다.⁴⁰⁾ 다음은 발보리심(發菩提心) 12구로, 부지런히 수호하는 마음으로 법계 모든 중생이 함께 보리심을 내어 불도를 이루도록 발원한 내용이다. 이어 발보리심진언으로 『오부관정의』를 인용한 인상(印相) 설명과 보리심을 내는 진언을 수록하였다.⁴¹⁾ 다음 귀의삼보(歸依三寶)는 10구 분량으로 삼세의 모든 삼보에 귀의하여 정행 수행자가 되어 윤회를 벗어나겠다는 내용이다. 내용이 『법원주립』의 팔계 수법부 내용을 개송화한 인상을 주는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다.⁴²⁾ 분주는 『참경소(懺經疏)』에서 인용하여 용어를 해설한 것인데, 유사한 내용 전거를 찾기 어렵다. 다음은 팔계상(八戒相) 22구이다. 살생·투도·음일·망어·음주 5계와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향화를 바르지 않고, 즐겨 관람하거나 듣지 않고, 때 아닌 때 먹지 않는 조항을 들어 팔계재를 지켜 초계(草繫)비구처럼 견지하겠다는 내용이다. 명칭은 팔계재이지만 꼽은 조항은 9개여서 계와 재를 구분한 경향을 따른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는 분주나 진언의 부가가 없다. 다음은 마지막 회향발원(迴向發願)으로 24구의 가장 많은 분량이다. 법계의 모든 중생이 팔계재를 수지하여 위없는 보리심을 내어 미래세에도 악취에 떨어지지 않으며, 아미타불의 인도를 받고 세존의 섭수력을 이어 연화좌에 왕생하고 미타의 수기를 받아 깨달음을 증득하기를 발원하였다. 이중 일부 내용은 자각종색(慈覺宗曠)의 『염불회향발원문(念佛迴向發願文)』의 내용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⁴³⁾ 진언은 『회향륜경(迴向輪經)』에 나오는 것과 같다.⁴⁴⁾ 여기에 대한 분주는 중죄 경죄의 일체번뇌를 모두 벗어나고 집금강보살의 보호를 받아 제불의 정토에 왕생한다는 내용인데, 대체적인 의미는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藥師琉璃光七佛本願功德經)』 하권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⁴⁵⁾

39) 『法苑珠林』 권89(『大正藏』53, p.940上13).

40) 『阿闍如來念誦供養法』(『大正藏』19, p.16上1).

41) 『五部灌頂儀』 인용문은 『蘇悉地羯羅供養法』의 내용과 유사하고, 진언은 分註에서 설명한 것처럼 『無畏三藏禪要』에 이 진언을 세 번 외우면 보리심을 내어 성불하고 견고하여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인용한 것이다.(『大正藏』18, p.944中3) 이 진언은 『佛說一切如來真實攝大乘現證三昧大教王經』 권1의 보살이 大明을 성취하고 대보리심을 일어나게 하는 진언과도 같다. 분주 후반 내용은 『화엄경』 「이세간품」의 “念戒 不離菩提心 一切善根迴向眾生”(『大正藏』9, p.655上16)을 인용한 것이다.

42) 『法苑珠林』 권88(『大正藏』53, p.934上8).

43) 宗曠, 「念佛迴向發願文」 『樂邦文類』 권2(『大正藏』47, p.178中16).

44) 『佛說迴向輪經』(『大正藏』19, p.578上19).

45) 『藥師琉璃光七佛本願功德經』 권하(『大正藏』14, p.413下3).

전체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발원문 다음은 3분의 2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는 해설 부분인데, 『법원주림』과 여러 경론을 인용하여 계율의 여러 가지 의의를 설명하였다. 그중 대부분의 단락에서 여러 경론을 제시했지만, 사실은 『법원주림』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이 많다.⁴⁶⁾

첫 번째 “주림수법부운(珠林受法部云)” 단락은 『법원주림』 팔계부의 수법부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⁴⁷⁾ 『법원주림』이 『지도론』을 인용하여 누가 어느 날 하루 밤낮 동안 팔계 하나하나를 지키겠다고 서약하는 것이다. 8조항이 아닌 9조항을 일일이 열거하였는데 마지막에 인용한 『살파다론』에서는 8계를 꼽았다. 두 번째 “주림계상부운(珠林戒相部云)” 단락은 『법원주림』 오계부 계상부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⁴⁸⁾ 5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내용이다. 세 번째 “아함경운(阿含經云)” 단락은 『법원주림』 팔계부 계상부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⁴⁹⁾ 높고 큰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해설한 내용이다.

네 번째 “우바세계경운(優婆塞戒經云)” 단락은 5장이 넘는 긴 단락으로 『법원주림』 팔계부 공능부 내용을 『우바세계경』, 『지도론』 2차례, 『사천왕경』, 『제위경』, 『현우경』, 『지도론』을 차례대로 따라서 그대로 수록한 것이다.⁵⁰⁾ 『우바세계경』 내용은 칠보를 보시해도 하루 팔계를 수지하는 것만 못하며, 미륵이 출현할 때 백년 재를 받는 것도 지금 오탁악세의 하루만 못함을 말하여, 바로 지금 계를 실행하는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다. 『지도론』 내용은 중신토록 지키는 5계와 하루 지키는 8계를 비교 설명한 내용이다.⁵¹⁾ 다음 『지도론』 내용은 육재일에 팔계를 수지하는 이유를 설명한 내용이다.⁵²⁾ 『사천왕경』 내용은 육재일에 사천왕이 중생을 관찰하니 이날 잘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위경(提謂經)』 내용은 정월 5월 9일의 삼재월에 육재일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⁵³⁾ 『현우경(賢愚經)』 내용은 과거 가섭불이 멸도한 후 두 범지가 8계를 받아 한 사람은 하늘에 날기를 원했는데 계가 완전하지 않아 용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국

46) 이 해설 부분은 모두 18장으로 구성된 『수팔계재문』의 7장b-17장b까지이고, 그중 『법원주림』 내용의 인용은 7장b-15장a까지이다.

47) 『法苑珠林』 권88(『大正藏』53, p.934上8).

48) 『法苑珠林』 권88(『大正藏』53, p.938上2).

49) 『法苑珠林』 권88(『大正藏』53, p.934中28).

50) 『法苑珠林』 권88(『大正藏』53, p.932上2).

51) 『法苑珠林』 권88(『大正藏』53, p.932上7).

52) 『法苑珠林』 권88(『大正藏』53, p.932上14).

53) 『法苑珠林』 권88(『大正藏』53, p.934中27).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계를 완전히 갖추어 왕이 되어 다시 만난 인연을 말하며, 팔관재문을 잘 받든 결과 함께 석가불 출세시에 설법을 듣고 수다원과를 얻었다는 내용이다.⁵⁴⁾ 다음 『지도론』 내용은 최다의 선한 이익을 얻으려면 마땅히 지계해야 하니, 지계하면 하품은 인간세에 나고 중품은 천상에 나며 상품은 불도에 이르게 됨을 말한 내용이다.⁵⁵⁾

다음 “성실론문왈(成實論問曰)” 단락은 『법원주립』 팔계부 득실부의 내용으로, 앞서든 내용들에 약간 건너 뛰어 이어지는 부분이다.⁵⁶⁾ 8계를 모두 수지해야 하는지 묻자 능력에 따라 다소간 지켜도 됨을 말하고, 하루를 지켜야 하는지 묻자 하루, 반나절, 한 달 반 달 등이 모두 가능함을 말한 내용이다. 그리고 『아함경』을 인용하여 팔관재를 받으려면 먼저 전에 지은 죄를 참회한 후에 받아야 함을 말하였다.

“우다이타사경운(優陀夷墮舍經云)” 단락은 『우피이타사가경』을 적절히 인용하여 세상 16대국의 보배를 보시해도 하루 재계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하며 아라한도와 불도를 속히 얻는 육재일 팔계 수지의 중요성을 말한 내용이다.⁵⁷⁾ “불퇴전법경운(不退轉法經云)” 단락은 수십억겁의 수행 공덕도 하루의 지계공덕만 못함을 말한 내용이다.⁵⁸⁾ 이 두 단락은 『법원주립』에서의 인용이 아닌 직접 인용이다.

다음의 “월등삼매경계운(月燈三昧經偈云)” 단락 계송은 『법원주립』 수계편 권지부를 인용 수록한 것이다.⁵⁹⁾ 아무리 모양을 갖추고 법문을 많이 들었더라도 계율이 없으면 짐승과 같다는 내용이다.

다음의 “화엄경계운(華嚴經偈云)” 단락 계송은 16구는 『화엄경』(80), 4구는 『화엄경』(60)에서 인용하여 두 가지 대본을 모두 인용한 계송이다.⁶⁰⁾ 부지런히 지계하면 원하는 것이 원만해지고 심신이 안락하지니 청정계율을 수지하면 여래의 찬탄을 받으리라는 내용이다.

54) 『法苑珠林』 권88(『大正藏』53, p.933上24). 이 내용은 명대의 『八關齋法』에도 상세하게 인용 수록되었다.

55) 『法苑珠林』 권88(『大正藏』53, p.933中26).

56) 『法苑珠林』 권88(『大正藏』53, p.934上1).

57) 『優陀夷墮舍迦經』(『大正藏』1, p.912下22).

58) 이에 일치하는 경전 구절은 찾기 어렵다. 『不退轉法輪經』의 “於此世界二十億那由他劫修諸善根 不如娑婆世界於一食頃 與諸般若波羅蜜相應 令一衆生歸依三寶受持五戒” 정도가 유사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권1, 『大正藏』9, p.227上12).

59) 『法苑珠林』 권87(『大正藏』53, p.921中3).

60) 『大方廣佛華嚴經』 권17(『大正藏』10, p.737上17); 『大方廣佛華嚴經』 권6(『大正藏』9, p.433中13).

이하 인용은 반장에 미치지 않는 짧은 분량의 여러 경전 내용을 제시한 부분이다. “대품경운(大品經云)” 단락은 계율을 수지하지 않으면 삼악도에 떨어져 사람의 몸을 얻지 못하리라는 『대품반야경』의 짧은 인용이다.⁶¹⁾ “문수문경운(文殊問經云)” 단락은 세간의 보살계가 팔계임을 『문수사리문경』의 구절을 축약하여 제시한 것이다.⁶²⁾ “보살처태경운(菩薩處胎經云)” 단락은 팔관재계는 제불의 부모임을 인용한 내용이다.⁶³⁾ “비바사론운(毘婆沙論云)” 단락은 팔계를 근주(近住)라 하고 장양(長養)이라 한다는 의미를 풀이한 내용이다.⁶⁴⁾

마지막 “석씨요람팔계문중운(釋氏要覽八戒文中云)” 단락은 속인이 이 계를 수지해도 평상복을 입고, 우바새가 아닌 중간인의 무리에 들게 됨을 말한 내용이다.⁶⁵⁾

이렇게 하여 『수팔계재문』은 『법원주립』의 많은 내용을 수록하고 여기에 팔관재계 관련 경론을 인용하여 팔관재에 대한 종합적인 구성을 이루었다.

이와 같은 『수팔계재문』의 편찬은 편찬자로 지목된 무료(無了)가 창의적으로 펴낸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발문에서 극추(克樞)가 관휴가 편집한 『팔관재법』을 보고 개연히 신심을 내어 수지하고자 하였으나 뜻이 자세하지 않고 단락이 서로 이어지지 않아 무료가 상정하여 1권으로 펴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명대에도 『팔관재법』이 편찬된 것을 보면 『팔관재문』 계통의 편집본이 지속적으로 계승되었던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팔관재계의 본 뜻을 널리 펼치고 수지할 것을 거듭 강조한 데 이 『수팔계재문』의 의의가 있다. 이에 더하여 이 고려본 『수팔계재문』은 이원귀가 지은 「보권문(普勸文)」을 책머리에 덧붙여 사람들에게 팔관재계의 수지 실천을 권장한 의미가 있다. 실제로 20여 명이 이를 실천하는 향도 모임을 몇 년째 가졌다는 발문 내용은 큰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향도 자신들에 그치지 않고 “두 사람에게 권하면 자기가 정진한 것에 비길 만하고, 십 여인에게 권하면 복덕이 무량하며, 백 명 천 명에게 권하면 참으로 보살이고, 만 명을 넘으면 곧 아미타불이라”는 왕일휴의 권수정토계(勸修淨土偈) 곧 『용서증광정토문(龍舒增廣淨土文)』을 인용하여⁶⁶⁾ 시방의 승속 사부대중의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이를 권하기 위해 판에 새겨 책으로 간행하게 되었음을 밝히는데 이 책의 큰 의의가 있다.

61) 『摩訶般若波羅蜜經』 권8(『大正藏』8, p.282中14).

62) 『文殊師利問經』 권1(『大正藏』14, p.492下10).

63) 『菩薩處胎經』 권7(『大正藏』12, p.1052上22).

64) 『阿毘達磨大毘婆沙論』 권124(『大正藏』12, p.648下28).

65) 『釋氏要覽』 권상(『大正藏』54, p.272上5).

66) 王日休, 『龍舒增廣淨土文』 권3(『大正藏』47, p.261上22).

이는 팔관재계의 실천이 고려 사회에서 상당한 기반을 갖고 실천되었음을 말해주는 중요한 기록이다.

중국에서는 오대의 관휴가 『팔관재법』을 편찬했다고 이 고려본 『수팔계재문』에서 밝히고 있으므로 당말에서 송대에 이르는 시기에 팔관재계에 대한 실천 경향이 무르익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돈황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송초에 기록된 돈황의 팔관재 관련 계첩들이 이를 증명한다. 960년대부터 980년대까지 석문승정강론대법사자사문(釋門僧正講論大法師賜紫沙門)이라는 중앙 승계를 가진 수계사(授戒師) 도진(道眞)에게서 삼사의 증명 하에 여러 차례, 아마 거의 해마다 팔관재가 수여되었던 사실을 여러 계첩들이 확인해 준다. 964년(송 태조 건덕 2년, 고려 광종 15년)에 서사된 『팔관계첩(八關戒牒)』은 수계사 도진에게서 삼계사(三界寺)의 이감아(李愍兒)라는 인물이 계를 받았음을 밝힌 기록이다. 이감아는 고통받는 중생세계를 벗어나 깨달음의 성스러운 길로 들어가기 위해 팔계첩을 받아 수지하였다고 기록하였다.⁶⁷⁾ 같은 해에 같은 수계사에게서 여제자 보리중(菩提衆) 또한 계첩을 받았다.⁶⁸⁾ 이 계첩들의 존재는 부부로 추정할 수 있는 일반민이 중앙 승계를 가진 수계사에게서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팔관재계를 받아 실천하고자 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이 팔관재계첩과 동일한 수계사에게서 동일한 양식으로 오계첩(五戒牒)을 받은 이들도 있었다.⁶⁹⁾ 장씨(張氏)는 964년과 965년에 연이어 오계첩을 받았고, 보리중은 다음해인 966년에 받았다. 이는 수계 행사가 매년 주기적으로 열렸을 가능성을 말해 준다. 한편 역시 사주(沙州) 삼계사에서 982년부터 985년까지 네 번에 걸쳐 발급된 팔관재계첩은 정혜의(程惠意)에게 네 차례, 그리고 정씨(程氏)와 혜홍(惠弘)에게 각각 한 차례씩 발급된 것이다.⁷⁰⁾ 이 계첩에는 홍련이 물을 벗어나듯이 생사의 세계를 깨닫고 우거를 타고 화택(火宅)을 벗어난다는 구절이 있어 『법화경』의 영향이 깃들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계첩 역시 매년 수계 행사가 시행되었을 가능성을 크게 해 준다. 이 중 983년에 이신주(李信住)와 이승주(李勝住)에게 3통의 계첩을 발급한 것은⁷¹⁾ 형제로 추정되는

67) 『南瞻部洲娑訶世界三界寺授八關戒牒』, 『中國佛教版畫全集』 권1(北京: 中國書店, 2014), p.98, p.100, p.101.

68) 『南瞻部洲娑訶世界沙州三界寺授八關戒牒』, 위의 책, p.99.

69)娘子 張氏와 菩提衆이 그들이다. 『南瞻部洲娑訶世界沙州三界寺授五戒牒』, 위의 책, p.104, p.106, p.110.

70) 『南瞻部洲娑訶世界沙州三界寺授八戒牒』, 위의 책, pp.111-116. 정혜의에게는 982, 984, 985년, 정씨와 혜홍에게는 각각 982년에 발급되었다.

71) 『南瞻部洲娑訶世界沙州三界寺授八戒牒』, 위의 책, p.117.

이들이 팔관재계 실천에 참여했음을 말해 준다. 비슷한 시기에 사주 영도사(靈圖寺)에서는 혜원(惠圓)에게 보살계첩(菩薩戒牒)을 발급하였는데, 앞서의 예들과는 달리 수계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사주가 송의 판도 내에 있음을 밝힌 것이 다르다.⁷²⁾ 이를 통해 송초의 돈황지역에서는 팔관재계첩은 물론 오계첩과 보살계첩 등 여러 가지 계첩 발급이 성행하였고, 그 목적은 계첩의 종류에 상관없이 고해를 벗어나 깨달음의 길로 향하고자 하는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팔관재계의 단독 유행은 아니지만 관휴의 『팔관재법』 편찬과 맞물려 당말송초에 팔관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컸고 실제로 실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전주어 13세기에 고려에서 편집되고 발간된 『수팔계재문』은 고려 사회에서 팔관재계에 대한 관심이 컸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부처의 수기를 받고 깨달음에 이르자는 수행 모임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해주는 의의가 있다. 12세기 후반 무신란을 기점으로 전개된 사회변동에 상응하여 기존 보수적인 경향의 중앙 불교계에 대한 비판운동으로 선 수행 중심의 수선사와 미타참회 중심의 백련사의 결사 모임이 새로운 경향을 주도하였다.⁷³⁾ 13세기 전반의 『수팔계재문』의 편집과 간행은 이와 같은 새로운 신앙 경향의 현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주목되는 실례이다. 팔계를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모임이 결성되고 자신들의 진정한 신앙 실천을 위해 잘 정비된 이론 체계를 갖추고자 역량 있는 승려에게 의뢰하여 이들 내용을 수록한 대본을 실천 집단 스스로의 구성원이 직접 편집하고 간행해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고려시대의 불교 신앙은 관음신앙이든 지장신앙이든 거의 모든 종류의 신앙이 가장 보편적인 신앙인 정토신앙에 포용된다. 이는 신앙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정토왕생을 기본으로 하면서 재가보살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삼귀계(三歸戒)와 오계(五戒)의 수행 등 보살도의 수행이라는 본질적인 면도 중요하게 여기고 바른 인식을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더욱 수행에 정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⁷⁴⁾

이와 같은 인식은 『수팔계재문』을 간행했던 주체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수팔계재문』의 간행과 이를 필요로 했던 수행집단의 존재는 고려불교가 새로운 불교계의 활력을 이끌 다양한 수행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던 노력의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초 이래 팔관회라는 불교적 색채가 강한 거국적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

72) 『南瞻部大宋國沙州靈圖寺授菩薩戒牒』, 위의 책, p.123.

73) 蔡尙植, 『高麗後期佛教史研究』(서울: 일조각, 1991), pp.24-27.

74) 鄭濟奎, 「高麗時代 佛教信仰結社에 대한 認識과 그 性格-東文選 所載 信仰結社 記錄을 중심으로-」, 『文化史學』 21(서울: 한국문화사학회, 2004), pp.640-644.

교에서 말하는 팔관재 본연의 수행 실천을 다짐하는 팔관재 향도의 존재와 이들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수팔계재문』의 간행은 13세기 고려 불교계의 새로운 흐름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사례의 하나로써 그 의의를 충분히 평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맺음말

1247년에 고려에서 간행된 『수팔계재문(受八戒齋文)』은 고려 불교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해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지금의 원주 지역인 북원(北原)에서 일단의 승려와 일반인 20여 인은 향도(香徒)를 결성하고 매달 단정한 마음으로 몇 년 동안 팔관재계를 수지 실천하였다. 그리고 자신들만 선업을 쌓을 것이 아니라 시방의 승속 사부대중이 모두 이 계율을 닦아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도록 팔관재계의 내용을 종합 편집한 『수팔계재문』을 널리 유포하고자 목판으로 간행하게 되었다. 승려 극추(克樞)가 오대의 관휴(貫休)가 편찬한 『팔관재법(八關齋法)』이 글이 자세하지 않고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아쉬워하자 신성사(神聖寺) 무로(無了)가 이들 내용을 여러 경론을 활용하여 새롭게 편집하여 1권으로 묶고 여기에 서문인 보권문(普勸文)을 붙여 편찬했다. 계를 수지하면 고해를 벗어나 극락에 이르므로 승속을 막론하고 팔관재계를 수지하여 생생에 함께 정업을 닦아 중생을 교화하고 대원을 널리 닦아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자는 것이 팔관재계 향도들의 바람이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국가적 불교 행사로서 팔관회가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조화와 연회를 병행한 팔관회는 군왕은 물론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의식임과 동시에 외국인들도 참여함으로써 국제관계가 가미된 국제성을 띤 행사였다. 팔관회는 내적으로 고려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는 행사였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고려가 중심이 된 다원론적 천하관을 표현하여 국제적 위상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관민이 어우러진 의식이었던 팔관회는 사회적 일체감을 드높이는 행사로서 고려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불교적 행사였던 것이다.

팔관회(八關會) 행사는 ‘팔관’의 불교적 원의와는 달리 사회의식으로서 더욱 역할을 하였던 불교행사인 반면, 팔관재(八關齋)는 팔관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 팔계재의 실천을 통해 고해를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기를 기원하며 궁극에 정통에 왕생하기를 기약하는 신앙적 모임이었다. 이는 고려 불교 신앙의 큰 흐름과 함께 하며 정토신앙과 결합된 다양한 신앙의 한 양상을 새롭게 보여준 것이었다. 『수팔계재문』의 간행과 실천을 통해

확인된 고려의 팔관재 신앙은 같은 명칭을 가지면서 내용은 사뭇 다른 팔관회와 함께 고려 지역사회에서 신앙적 본질과 수행으로 불교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던 의미 있는 모임이었다.

참고문헌

1. 원전류

- 『高麗史節要』 권1
『高麗史』 권2, 권68
『大方廣佛華嚴經』 권17 『大正藏』10
『法苑珠林』, 『大正藏』53
『四分律名義標釋』
『薩婆多毘尼毘婆沙』, 『大正藏』23
『三國史記』 권4
『受八戒齋文』 木板本. 동국대학교 도서관 소장
『阿閼如來念誦供養法』, 『大正藏』19
『藥師琉璃光七佛本願功德經』, 『大正藏』14
『龍舒增廣淨土文』, 『大正藏』47
『增一阿含經』, 『大正藏』2
『地藏菩薩本願經』, 『大正藏』13
『八關齋經』, 『大正藏』1
『八關齋法』, 『續藏經』60

2. 단행본

- 『中國佛教版畫全集』 권1, 北京: 中國書店, 2014
국사편찬위원회, 『사상과 신앙으로 본 불교전통의 흐름』, 서울: 두산동아, 2007
김종명, 『한국 중세의 불교 의례: 사상적 배경과 역사적 의미』,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1
安啓賢, 『韓國佛教思想史研究』, 서울: 동국대출판부, 1983
안지원,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蔡尙植, 『高麗後期佛教史研究』, 서울: 일조각, 1991

3. 논문

鄭濟奎, 「高麗時代 佛教信仰結社에 대한 認識과 그 性格-東文選 所載 信仰結社 記錄을 중심으로-」, 『文化史學』 21(서울: 한국문화사학회, 2004), pp.640-644.

정병준, 「顔眞卿 <有唐宋州官吏八關齋會報德記> 譯註」, 『新羅史學報』 제27호(성남: 신라사학회, 2013), pp.353-370.

金炯佑, 「高麗時代 國家的 佛教行事에 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서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2

김혜숙, 「高麗 八關會의 內容과 機能」, 『역사민속학』 9, 서울: 역사민속학회, 1999, pp.

安啓賢, 「八關會攷」, 『東國史學』 4, 서울: 동국사학회, 1956, pp.

韓政洙, 「高麗 太祖代 八關會 設行과 그 의미」, 『大東文化研究』 86, 서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4, pp.

_____, 「高麗時期 定期 佛教儀禮의 成立과 性格」, 『民族文化論叢』 27, 대구: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03, pp.45-46

<Abstracts>

The Palgwanhoe Ceremony and the Practice of the Eight Prohibitions in Goryeo

Jung, Byung-Sam

Official Palgwanhoe ceremonies were carried out in grand style in Goryeo. They included a celebration and a feast, and were enjoyed by the king and the people together. When foreigners joined in the ceremony, it became an international event. The Palgwanhoe ceremony cultivated the community spirit of Goryeo society, and it raised the international position of Goryeo. The Buddhist Palgwanhoe ceremony encouraged the unity of Goryeo through mediating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In 1247, the *Supalgyehaemun* was published in Bukwon, Gangwon province. This book proved to be important to Goryeo Buddhism. The monk Muryo edited it for Hyangdo, who attached importance to the eight prohibitions and accomplished them. They continuously practiced for years every month. So that people everywhere could practice these prohibitions, the editor produced more copies of the *Supalgyejaemun* using wooden prints. Palgye-hyangdo wanted to save ordinary people and attain enlightenment through practicing the eight prohibitions.

Palgwangoe was a Buddhist ceremony that had a social function aside from the eight prohibitions, which differed from its original Buddhist meaning. Palgwanjae was a faithful association designed to help people escape from suffering and attain enlightenment through practicing the eight prohibitions, just as Palgwangoe was originally intended to do. The publication of the *Supalgyejaemun* verified the effect of the Palgwanjae on the faithful of Goryeo society who practiced it, contrary to Palgwanhoe, which came to have a different meaning from the one originally intended.

• **Keywords**

Supalgyejaemun, Palgwanhoe, Palgwan precepts, Palgye-hyangdo, faith in the pure land, Muryo, religious community.

논문접수일: 2015년 6월 7일, 심사완료일: 2015년 7월 10일,
게재확정일: 2015년 7월 13일.